『기독교사회윤리』 제57집
(2023) 99~126

#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에 대한 여성신학적 이해

**최순양**(이화여대 전임강사)

I. 들어가는 말

II. 본질적 여성성의 극복으로서의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
1. 여성과 '모성성'(자연)의 연결
2. 몸을 담론으로 읽기

III. 본질적 여성주의의 문제점 극복과 차이의 페미니즘

IV.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 이론가, 로지 브라이도티의 차이의 페미니즘

V. 비인간 존재들과의 얽힘 : '유목적 주체'로서의 여성

VI.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신학적 제안
1. '창조주 하나님'이해에 대한 극복
2. 극복해야 할 신의 이미지: 인간과 자연을 돌보는 하나님(돌봄자 하나님)

VII.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3.57.04

www.kci.go.kr

## • ABSTRACT •

# Feminist theological understanding of critical posthumanism

Full-time Instructor, Choi, soonyang (Ewha Womans University)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criticize the epistemological definition of women and human-centered theology. They define women through images of mother, childbirth, etc. as opponents of the subject called Western white men. This is because the categories that define humans are dichotomous and tend to essentialize women as the inferior other. To go beyond these fixed and essential definitions of women, we would like to look at the critical posthumanism advocated by Rosie Braidotti. They read women as beings who are constantly moving and intertwined with other beings. To dismantle these human-centered languages, I will criticize the Christian concept of the Creator and the caring God and propose the concept of God as 'mystery' and 'darkness'.

Key words: Epistemological Women, Anthropocentrism, Critical Posthumanism, Rosie Braidotti, Feminism of Difference, God as Chaos, God as Sustainer

www.kci.go.kr

## I. 들어가는 말

이 글에서는 인간을 이분법적으로 구별하고 그 분류법에 따라 서열화한 인간중심적 언어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인간을 이분법적으로 구별하는 방식의 문제점은 존재를 주체와 타자, 남성과 여성, 그리고 인간과 동물로 분류하며 후자의 분류법에 속하는 존재들을 열등하고 부정적인 존재로 상정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이 글에서는 여성을 남성의 '타자'로 규정하는 것과 비인간적 존재들을 인간보다 열등하게 여기는 것의 문제점을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의 관점에서 다룰 것이다.

여성을 여성이 되게 하는 방식은 인식론적으로 여성의 특징을 규정하는 방식과 여성의 생물학적 특징 혹은 여성의 역할을 통해 여성이 누구인가를 규정하는 방식,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인식론적으로 여성을 규정하는 방식의 문제는 여성을 정상적, 보편적 인간이라고 가정하는 서구 백인 남성의 타자로 이해하는 것이다. 즉,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남성에 비해 대조적으로 감성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따라서 원시나 자연에 가까운 존재로 이해한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서구 백인 남성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허구화하며, 이에 비해 비서구 백인 남성의 존재는 부정적으로 열등화하여 고정화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해관계는 페미니즘 안에서도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 생태여성주의에서 여성들을 자연과 생태와 유비될 수 있는 존재라고 이해하는 관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여성이 남성과 달리 출산과 양육, 돌봄이라고 하는 생물학적 특성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믿기 때문인데,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하는 비판적 포스트 휴먼 관점에 따르면,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그리고 각각의 생물학적 역할로 나누는 것은 다양한 존재들과 얽혀진 존재로서 인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에 따르

www.kci.go.kr

면 여성을 포함한 인간들은 사회학적 범주에 따라 본질적인 존재로 정의되기보다는 그들의 삶의 상황과, 현실, 이동하는 흐름에 따라서 '머물지 않고 옮겨 다니는' 존재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이글에서 필자는 여성을 생명과 돌봄의 역할을 하는 남성의 이분법적 타자로 고정화시켜 바라보았던 이분법적 인식론을 극복하면서 '과정 중의' 존재로, 혹은 유목적 주체로 상상해 보자고 제안할 것이다.

먼저 생태여성주의와 생태여성신학이 남성과의 이분법적 차이를 근거로 여성을 정의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물음을 가지고 고찰할 것이다. 이후, 이러한 이분법적 차이를 해체하고자 등장한 '차이의 페미니즘'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을 주장한 페미니스트라고 할 수 있는 로지 브라이도티의 논의를 통해서 여성들을 다양한 차이들을 가지고 '되어가는' 존재로 상상해 보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인간 중심적 언어를 극복할 수 있는 신학적 통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술해 보고자 한다.

## II. 본질적 여성성의 극복으로서의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

### 1. 여성과 '모성성'(자연)의 연결

생태여성주의 운동은 여성의 동등성과 해방을 추구하는 것이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기후 위기나 온난화 현상 등 지구 전체의 상황이 심각성을 더해 감에 따라 자연을 보존하고 기후 위기를 멈추기 위한 운동과 같이 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시작되었다. 특별히 이러한 기후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을 여성들에게서 찾고자 한 사상들이 생겨났는데, 여성과 생태가 타자화된 역사를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여성적인 힘이야말로 생태위기 극복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 급진주의 페미니즘( Radical feminism)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www.kci.go.kr

이들은 사회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본질적인 것으로 간주하면서 여성성을 남성성보다 열등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비판적이다. 급진주의 페미니즘 중에서도 여성을 생태와 연결하는 생태여성주의는 특별히 서구 백인 남성의 타자로 간주 되었던 여성과 생태에 대한 가치 전환을 요청한다. 생태여성주의에서는 여성성과 자연은 그 가치가 재평가되어야 하며 남성성과 여성성,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여성적이고 사적인 영역, 그리고 자연에 속한 존재들이 열등하게 여겨진 것을 동시에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의 돌봄과 출산이라고 하는 성역할이 생태계의 돌봄과 치유력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보며 저평가 되어왔던 출산과 양육에 대해 동등한, 어쩌면 우월한 가치를 부여하고자 했다.

그러나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여전히 여성들을 본질적으로 "출산과 육아"의 역할을 하는 이들로 고정화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이다. 여성을 남성과 이분법적으로 다른 존재로 볼 뿐 아니라, 남성보다 여성이 자연에 가깝다고 간주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구분법은 사실 사회적 정체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마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질적 특징인 것처럼 여기게 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여성성은 자연을 닮은 여성성인데 이 여성성을 과연 여성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게 된 선천적 특성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정당할까?

예를 들어 여성성과 '모성성'을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여성성을 설명할 때, 이는 이성과 합리성으로 허구화된 소위 '주체'의 폄하된 타자로 여성을 상정하게 된다. 남성의 특징과 반대의 특징으로 즉 임신하지 않는 남성과 임신하는 여성이라는 측면에서 '모성성'을 여성의 특징으로 찬양하게 되면 여성들은 정상성 이데올로기에 갇히게 된다. 즉, 여성들은 필수적으로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성역할의 고정화와 함께, 모성성을 실천

www.kci.go.kr

하지 않는 여성은 여성이 아니라고 봄으로써 비정상적 여성으로 차별하게 되는 것이다.[1)]

여성과 남성을 '다르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서구 백인 남성을 주체로 여기고 그 주체와의 대비되는 특징을 여성성으로 간주해 왔기 때문이다. 즉,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주체와 열등하게 다른 존재로, 타자로 여성은 정의되었다. 본질적이라고 간주하는 주체의 특징이 기준이 되고, 타자로 여겨진 여성 역시 열등한 본질적 특징을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이런 점에서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모성성은 동일자로 여겨진 남성의 열등한 면을 나타내고 있는 '괴물'과 같다라고 지적했다. "어머니의 신체는 신성하면서도 더럽혀진 것이고... 매혹과 혐오를 동시에[2)]" 일으킨다.

페미니즘 안에서는 따라서, 이러한 괴물적 특징을 여성의 특징으로 여전히 본질화하는 사람들도 있고, 역사적으로 열등화되고 부정적으로 읽혀진 이 여성성을 탈피하는 것이야말로 여성의 해방을 가져온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 2. 몸을 담론으로 읽기

여성성을 부정적으로 읽는 방식이 설득되자, 페미니즘 안에서는 그렇다면 여성의 신체를 부정하고 열등하게 여기는 것인가? 아니면 여성이라고 읽히는 기호나 존재론적 특징이 열등하게 여겨지는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질문들 속에서,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성적 역

1) 이연정, "여성의 시각에서 본 모성론," 「여성과 사회」 6(1995), 165.

2) Rosi Braidotti, *Nomadic Subjects,* 박미선 역, 『유목적 주체』 (서울: 여이연, 2004), 141.

www.kci.go.kr

할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들은 여성의 몸에 설정된 사회적 담론이라고 보는 시각이 생겨난다.

슈잔 슐리이만(Susan Suleiman)은 '젠더(Gender:사회적 성)'라고 하는 것 역시 인간의 몸에 사회적 담론을 입혀 놓은 것이라고 보았다.

"여성 몸의 문화적 중요성은 그것이 살과 피로 이루어진 실체일 뿐 아니라 … 상징적인 구축물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몸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어떤 담론의 형식으로 존재한다."[3] 여성의 몸과 관련하여 공통된 특징이 있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은 본질주의를 여전히 주장하는 사람들과 여성에게 본질적인 것은 없다라고 하는 반본질주의적 입장을 지닌 사람들 간의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몸이 살과 피로 이루어진, 우리가 끊임없이 느끼고 지니게 되는 실체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석이 되고, 의미가 입혀지는 담론이기도 하다라는 시각을 가지게 되면 그 둘 사이의 논쟁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비슷한 논지에서 문화인류학자 더글라스는 〈자연적 상징들〉에서 '인간의 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몸을 해석하는 문화적 영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몸을 해석할 때 물리적인 몸이 작용하고 그에 따라 사회적 해석이 가미되기도 하지만, 물리적인 몸과 사회적으로 해석된 몸 사이에서는 끊임없는 의미교환이 일어난다는 것이다.[4]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성과 '모성성'을 동일성으로 읽는 젠더 정체성은 더 이상 순수하게 인간의 몸에서 유래한 '자연적'이고 본질적인 사실로 간주될 수 없다.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을 전개시키는 로지 브라이도티 또한 '괴물'로 간주되는 여성을 본질주의나 반본질주의라고 하는 극단적 이분법 속에

3) 앤 마리 발사모, 김경례 역, 『젠더화된 몸의 기술』 (홍천: 아르케, 2012), 50에서 재인용.

4) 위의 책, 52-53.

www.kci.go.kr

가둘 수 없다고 생각한다. 비정상적으로 부정적으로 읽혀진 사람들이 스스로의 특징을 긍정하면서도 새로운 가능성과 주체성을 찾아나가는 데 필요한 것은 여성에 대해 정의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움직여 가는 것이다.

브라이도티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성성을 '아무것도 없음'으로 보기보다는 이전에 여성성이라고 정의해 왔던 것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포함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무런 관련이 없던 것처럼 보였던 곳에서" 연결 짓고 관계성을 찾아나가야 한다.[5] 이는 계속해서 여태까지 제시되어 왔던 것을 체화하고, 통과하고, 움직이는 것이다. 이를 그는 페미니즘에 필요한 "인식론적 유목주의"로 보았다.

## III. 본질적 여성주의의 문제점 극복과 차이의 페미니즘

인간중심주의를 그대로 견지하면서 여성과 남성이 선천적으로 다르게 태어났음을 강조하는 관점의 문제는 사회가 이데올로기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여성의 역할을 마치 타고난 운명과 같은 역할로 봄으로써 사적 영역, 즉 출산과 양육, 그리고 돌봄의 역할을 하는 위치에 여성을 제한하는 것이다.

혹은 서구중심주의가 작동하는 인간이해를 해체하지 못하고, 서구백인 남성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리더에 가까운 존재들이며 여성은 비합리적이며 감정적이기에 공적인 영역을 담당하기에 부족한 존재들이라는 생각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분법적 차별이 담긴 생각들은 다양한 주체자들을 남성과 여성, 서구와 비서구, 문명과 원시 등의 집단적 개념으로 이해하게 할 뿐

5) 로지 브라이도티,『유목적 주체』, 157.

www.kci.go.kr

아니라 후자의 영역에 속한 자들은 열등하고 비정상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서구 백인 남성은 이성적이고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생각은 신의 모습까지도 마치 '서구백인남성'인 듯 고정화하게 되었고, 메리 델리가 주장한 것처럼 "하나님이 남성이면, 남성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런 편견으로 인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여성들은 종교적 지도자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배제 되어왔다.

따라서 여성성을 생물학적 특징으로 고정화하지 않고, 출산과 돌봄 등의 사적 역할에 적합한 존재들로 간주하지 않으면서도 남성과 여성은 혹은 여성 간에도 다양한 차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는 여성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성을 제거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성성을 삭제하거나 남성과 같은 존재라고 볼 경우, 남성성이 여전히 인간의 정상 기준으로 작용하여 남성성을 가지지 않는 존재들을 -여성을 포함하여- 배제하고 열등화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다양한 여성들을 본질적으로 보편화하지 않으면서도 여성과 비인간적 타자들이 서구백인남성을 주체로 보는 이분법으로 인해 대상화되고 억압되어왔다는 관점을 가지고 여성과 비인간적 타자들의 주체화를 논하는 이론이 필요하다.

여성과 여성 간의 차이를 말하기 시작한 페미니즘은 우머니즘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우머니스트'라는 용어는 앨리스 워커가 자신의 산문집 〈어머니의 정원을 찾아서〉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라고 한다. '페미니스트'라는 말이 서구의 인권운동의 영향을 받아 진행되었던 것만큼 아무래도 계급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흑인여성들은 인종, 계층, 그리고 성차별을 다루어야 하지만 백인여성에게는 성차별의 문제만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즉, 백인중심의 페미니즘은 여성이 경험하는 성차별

www.kci.go.kr

이외의 문제 인종, 계층, 빈곤 등의 문제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이슬람 여성의 '베일'을 해석함에 있어 이러한 문화가 여성들에게 억압적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이슬람이 지니고 있었던 문화와 관습을 일방적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서구중심주의적 시각이 페미니즘에서 비판되지 않고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6] 따라서 이슬람 여성의 입장에서는 페미니즘적 시각과 탈식민주의적 시각을 병행하면서 복잡하게 교차적으로 이러한 여성들의 문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차이의 페미니즘은 다양한 여성들이 우리는 백인 엘리트 여성들과 같지 않음을 주장한 곳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유색인종 여성, 흑인 여성, 퀴어 여성, 계급적 약자 여성들이 각자가 처한 차이들을 '교차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에 권위를 싣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정체성들도 그리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계급, 젠더, 인종 등의 정체성이 다른 어떤 요소보다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작동할 때는 다른 차이들을 무시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7]

페미니즘에서 지향하는 여성해방을 이루기 위해서 여성을 '우리'로 구성하고자 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하나의 특성을 가지고 여성을 공통적으로 묶는 것은 한계가 있다. 즉 어머니로 여성을 볼 때, 어머니가 되고자 하지 않는 여성이 여성이 아니게 된다. 또한 인종차별이 없어진다고 해서, 흑인 여성들이 모두 해방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8] 여성들은 저마다 독특성과 복잡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여성들을 정의내릴 수 없는 존재로 보는 것이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될 수 있다. 다층의 억압구조에 있는 여성들은 과정적으로 사

6) 한국영미페미니즘문학회,『페미니즘 차이와 사이』(서울: 문학동네, 2011), 184.
7) 최유미,『해러웨이, 공-산의 사유』(서울: 도서출판b: 2020), 170.
8) 위의 책, 175.

www.kci.go.kr

안에 따라 경험하는 억압에 따라 문제제기 하고 저항하는 것을 계속해 나가야 할 지도 모른다. 또 다른 사안이 등장하면 그에 대해 연대하고 함께 싸우는 것을 교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로지 브라이도티나 도나 해러웨이는 여성들은 정형화될 수 없는 존재, 괴물, 사이보그로 상정하면서 여성들을 이분법적 정의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였다.

## IV.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 이론가, 로지 브라이도티의 차이의 페미니즘

포스트휴머니즘에는 포스트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시대적 변화를 완강히 거부하는 부정적 포스트휴머니즘과, 이를 환영하면서 자본주의적 이해관계에 깊이 연관되어 있는 긍적적 포스트휴머니즘이 있다. 기술적 포스트휴머니즘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입장은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미래와 진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다.[9] 이에 비해서 포스트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시대적 변화를 거부하지도 그렇다고 무조건 환영하지는 않으나, 포스트휴머니즘을 통해서 어떻게 더 많은 존재들을 챙기고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부류를 우리는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이라고 이해한다. 로지 브라이도티가 대표적인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을 이끌고 있는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다.

로지 브라이도티는 여성을 포함한 타자들은 (성적 타자와 인종적 타자가 대표적이다) 서구 백인 남성이라고 하는 표준적 인간상(소위 주체)에 의해 끊임없이 부정적이며 열등한 존재들로 여겨졌다고 하는 포스트모던적 이해에 공감한다. 그리고 이러한 타자적 존재로 정의내려 온 여성에

9) 김진호 외, 『인간 너머의 인간』 (고양: 사월의 책, 2021), 117.

www.kci.go.kr

대한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브라이도티는 '유목적 주체'로 재탄생할 것을 여성들에게 권하면서 여성들이 체현하는 차이를 강조하는 데, 이는 남성과 여성, 혹은 인간과 비인간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차별적 차이와 다르다고 보았다. 여성들 간의 차이와 나아가 다양한 인간들의 차이를 품는 '차이의 페미니즘'은 여성들을 영혼적 존재로도 보면서 동시에 육체적인 존재로'도' 볼 것을 주장한다. 브라이도티가 설명하는 유목민으로서의 여성은 형이상학에 따라 정의되어 온 부정적 타자로서의 여성 정체성으로부터 탈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목적 주체로서의 여성은 고정된 정체성을 지니고 있지 않고, 사회가 제공하는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는다. 한 여성이 여성의 대표자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여성들이 경험하는 경험들이 릴레이처럼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유목적 주체로서의 여성들은 "동일시를 형성하지는 않지만,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되돌아온다."[10]

물론, 우리는 사회에서 정의되어 온 '여성성'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은 늘 나의 상황과 선택과 현실과 연관되어 있다. 브라이도티에 따르면 여성이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은 '유목적 지도 작성'과도 같다.[11] 그려나가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다시 그려나가면서 먼저 있었던 것을 폐기하고 새로운 것들을 채워나간다.

여성이 마치 유목민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 나가고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자신을 복수적 존재로 '상호연관성'의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다.[12]

우리 사회에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정상성과 규범성에 근거하여 존재자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한 인간의 인간됨이 다양한

10) 로지 브라이도티,『유목적 주체』, 78.
11) 위의 책, 78.
12) 위의 책, 79.

www.kci.go.kr

종류의 인간들을 평가하는 기준이자 규범이 된다는 것이다.[13] 서구 백인 남성이라고 하는 '주체'는 성차화된, 인종화된, 자연화된 타자들을 이분법적 열등성을 가진 존재로 정의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주체로 정의되어 온 허구적 정체성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현실 속에서 어우러져 사는 존재들의 독특성과 차이를 새롭게 명명해 나갈 필요가 있다.

브라이도티에 따르면 인간을 고정적 존재가 아니라 움직이고 변해가는 '유목적'존재로 바라볼 때, 인간을 남성(man)과 제2의 (남)성인 여성(woman)으로 단 두 개로만 분류할 수 없다. 다양한 인간들이 나타내고 있는 복잡성과 다양성은 이분법적으로 표시될 수 없기 때문이다.[14]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이미 여성을 유럽중심적인 존재로 상정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여성 안에서도 인종과 계급,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등의 무수한 차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브라이도티는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비판을 이어받아 인간과 여성 안에서뿐 아니라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타자화되고 차별된 존재들이 있음을 드러낸다. 자연화된 타자( 동물이나 생태)들은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서구 백인 남성으로 상정된 동일자(주체)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수단으로 인식론적으로 고정화되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가면서 기술 발전의 어두운 면을 차지하고 있는 존재들은 비단 여성뿐만이라고는 볼 수 없다. 신체가 자본의 도구로 쓰이는 존재들은 여성 중에서 '대리모'를 그 예로 들 수 있겠으나, 신체 조직을 위해서 쓰이는 존재들, 장기나 혈액을 매매할 때 희생되는 존재들(동물이나 기계)을 모두 포함한다.[15] 따라서, 여성들을 '여성성'으로 억압받는 존

13) Rosi Braidotti, *Post Human*, 이경란 역, 『포스트휴먼』 (파주: 아카넷, 2015), 40.
14) 위의 책, 41.
15) Rosi Braidotti, *Posthuman Knowledge,* 김재희/송은주 역, 『포스트휴먼 지식』 (파주:아카넷, 2022), 57.

www.kci.go.kr

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착취받는 '신체'로 보는 것이 현실을 읽을 수 있는 적절한 관점이 될 수 있다. 이들은 다른 존재를 생산하기에, 그리고 그들의 신체가 변형되기에 '괴물'로,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여겨지면서 착취당하고 희생물이 되기 쉽다.

여성을 '괴물'로 읽는다는 것은 포스트휴먼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존재들이 착취와 도구로 이용당하는 현실을 읽어내는 비판적 관점이기도 하다.

정형화된 여성을 벗어난 존재로 여성을 새롭게 상상하도록 권하는 것은 '여성은 사이보그다'라고 선언했던 도나 해러웨이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해러웨이는 '페미니즘이 다양한 여성들을 과연 모두 여성들이라고 인식해 왔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기계 생산품을 만들기 위해 일하는 노동자 여성들이 있다. 전통적으로는 이들은 가사나 출산의 일을 담당하였겠지만, 가정 경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부유한 나라로 이민하여서, 노동직에 종사한다.

이들은 전통적인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의 삶을 사는 모습은 아니다. 페미니즘 중에서는 생태여성 페미니즘 등과 같은 여성은 자연과 유사한 존재이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존재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해러웨이는 이러한 이주 노동자 여성들처럼 '사회가 생각하는 여성적 역할을 담당하지 않으나 인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여성이라고 하는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주 노동자 여성들, 그중에서도 전자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을 해러웨이는 "집적회로 속의 여성들"이라고 하는 데, 이들은 어머니 자연의 딸이기도 하지만 군산 복합체가 낳은 의도하지 않은 '아이러니'이기

www.kci.go.kr

도 하다. 16)

이들은 로지 브라이도티가 말한 '괴물'로 존재한다. 자연과 인공, 물질과 영혼, 인간과 동물을 나누는 이분법적 구분에 들어가지 않는 잡종이면서 돌연변이이다. 여성을 사이보그라고 바라본다는 것은 더 이상 인간과 자연을 나누고, 남성과 영성을 나누는 이분법적 구분에 머물러있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분법을 유지하면서 존재들을 차별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여성들과 비인간 존재들이 계속해서 열등하고 가치없다고 평가되어 차별당하거나 억압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더 이상 인간과 자연이 동물과 문명, 기계와 분리되어 따로 존재하는 시대는 불가능한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다. 여성의 몸을 통해 진행하던 출산도 기계를 통해 인공출산 혹은 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해러웨이는 이제 더 이상 인공과 자연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말자고 제안한다. "집적회로 속의 여성들"이 우리와 같이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존재자라면 이들은 자연적인 모습뿐 아니라 인공적인 모습 또한 혼종적인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17) 자연이나 인간도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생산품들도 모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공의' 존재라고 인식해야 한다. 순수한 형태에서 변하지 않는 고정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머니라고 하는 여성의 정체성 또한 사회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며, 세상을 구원하는 여신조차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전통적인 성역할에서 벗어나지 않은 존재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해러웨이는 여성은 차라리 여신이 아니라 '사이보그'라고 정의한다. 사이보그는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부

16) 최유미, 『해러웨이, 공-산의 사유』, 161.
17) 위의 책, 179-180.

www.kci.go.kr

과된 고정된 역할에 매이지 않을 뿐 아니라 기계와 동물들과 같은 다양한 존재들과 접속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

## V. 비인간 존재들과의 얽힘 : '유목적 주체'로서의 여성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은 상품화되기 쉽다. 생명공학이나 유전공학을 예로 들자면, "살아있는 모든 것을 과학적이고 경제적으로 통제하고 상품화시키기 위해 투자하고 그로써 이익을 얻는다."[18] 이미 생태학과 환경운동에서는 인간이 아닌 자연적 존재들이 인간의 지배와 남용으로 오랫동안 착취당하고 살 곳을 잃어가고 있다고 경고해 왔다.

이들은 인간중심주의가 자연을 착취하고 죽여가는 것과 밀접한 연결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모든 생명을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파괴하며 사용해 왔던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인간중심주의를 포기하고 인간이 아닌 존재들에 대한 깊은 존중과 중요성을 인식해야만 한다. 반다나 시바 등의 학자는 남성성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어 온 '개발'의 논리와 자본주의적 시장 지배 형식들을 포기할 것을 권고한다.[19]

이를 위해서 로지 브라이도티는 '되기의 윤리'를 강조한다. 들뢰즈가 제시하고 있는 '되어가는 존재'로서의 유목적 주체 개념을 페미니즘에 적용하여 브라이도티는 정신과 육체, 자연과 문명, 그리고 인간과 비인간을 상호 얽혀져 있는 존재들로 파악하고자 한다. 주체는 관념적으로 형성되기 보다는 정동적으로 생성된다.[20] 그물망처럼 인간은 사물과 기계 그리

18) 로지 브라이도티, 『포스트휴먼』, 81.
19) 위의 책, 66.
20) Rosi Braidotti, *Metamorphoses,* 김은주 역, 『변신』 (서울: 꿈꾼 문고, 2020), 139.

www.kci.go.kr

고 자연의 영향을 받으면서 현재를 누리고 형성해 가고 있다. 브라이도티가 주체를 '생성'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다른 존재들과의 영향을 받고 관계성 안에 있는 존재로 읽기 위함[21]이고, 이러한 생성되어가는 존재로 여성을 해석하는 것은 다른 비인간적 존재들과의 연관성을 인식하기 위함이다.

여성들은 기계와 연결되는 존재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여성의 삶과 얽혀있는 동물의 삶 또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동물, 기계 등의 비인간적 신체들을 인간들은 의학적, 과학적 발견과 발명을 위해 "학대받고 고통당하며" 또한 그 신체가 "유전적으로 재조합"의 재료로[22]남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우월하고 가치있는 인간을 영속하고 싶어서 발명해 내는 복제인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복제인간은 인간을 실험 대상으로 연구되어지지 않는다. 쉽게 실험하고 폐기할 수 있는 동물이 그 실험 대상이 된다. 복제양 돌리는 지난한 세월 동안 고통받으며 실험의 대상이 되었으나 결국에는 안락사로 죽음을 맞이했다. 이 현상은 인간이 강화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동물을 그 생체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전형적인 예에 해당한다.

서구백인남성 중심주의가 작용한 형이상학적 서열은 백인 유럽 남성을 표준으로 정상으로 놓고 다른 존재들( 성적 타자, 인종적 타자, 자연적 타자들)을 비정상적이고 괴물적인 존재로 간주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상은 철학적 사상으로만 작용하지 않고 현실 사회에서 다양한 신체들을 규율하고 통제하는 근거로 작용한다.[23]

동물들은 비정상적 존재들이기에, 그들의 신체는 인간의 산업 발전을

21) 박미선, "로지 브라이도티의 존재론적 차이의 정치학과 유목적 페미니즘," 「여성이론」 12(2001), 181.
22) 로지 브라이도티, 『포스트휴먼』, 16.
23) 로지 브라이도티, 『변신』, 236.

www.kci.go.kr

위해 무수히 이용 되어 왔다. 코끼리의 상아나 동물들의 가죽, 그리고 양털이나 모피 등은 인간의 삶을 위해서 다양하게 착취되어 왔다.[24] 이러한 현상이 동물은 인간을 위해 희생되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착취당하고 희생되는 동물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브라이도티가 말하는 '비인간 존재가 되기'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를 멈추고 다양한 존재들의 관점에서 생각하기를 연습하라는 의미일런지도 모른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괴물성으로 여겨진 여성의 신체뿐만이 아니라 지구의 다양한 자연적 타자들, 나아가서 생명체는 아니지만 행위능력을 가진 기계적 존재들의 희생을 통해 인간에게 향유된다. '여성되기'를 유목적 주체로 세워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이것은 여성 또한 '인간'이라고 하는 폐쇄적 존재로 머물기를 그치고 무수한 역사 동안 희생되어온 비인간적 존재들과의 연결된 존재로 그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이 된다. 백인의 죽음, 남성의 죽음 그리고 여성의 죽음을 의미하는 포스트휴먼 세계관 속에서 모든 존재와 연결되는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인간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 것인가를 묻는다는 것은, 기존의 이분법적 차이를 넘어 양극을 연결시키고, 육과 영을 잇고, 인간과 비인간을 얽혀져있는 존재로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유색인과 여성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여기며 존엄성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과정들을 밟아왔다. 이제 이러한 세계관을 더 넓혀서 인간 내에서'만' 평등과 존엄성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비인간적 존재들에게서도 실현될 수 있는 권리와 존엄성의 문제를 고민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24) 위의 책, 242.

www.kci.go.kr

## VI.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신학적 제안

### 1. '창조주 하나님'이해에 대한 극복

여성신학의 흐름 중에서 하나님이 남성인 것처럼 여겨진 것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을 '어머니' 혹은 여성성을 지닌 존재로 이해해 보자고 제안한 학자들이 있었다. 엘리자베스 존슨 과 같은 학자가 대표적으로 여성의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을 상상해 볼 것을 제안한 신학자이다.

엘리자베스 존슨이 여성의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을 표현하고자 한 것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상상하고 고백하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긍정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을 어머니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를 보호하고 돌보시는 그리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인간 여성의 모성성을 통해 유비 시키고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25]

그러나, 이러한 여성들의 '모성성'을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하심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은 한편으로는 인간 여성들에게 여전히 사회에서 강요하는 성역할에 머물러 있으라는 암묵적인 억압에 동조할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기존의 여성성을 서술하는 언어들에게서 자유로운 언어를 사용하여 신학적 상상력을 다시 채워나갈 것을 제안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남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인간 여성의 이미지 또한 가지고 있지 않다는 부정신학적 상상력을 가동시켜야 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려는 작은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 여성을 상상해 보는 작업의 시작으로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을 닮은 존재가 아니라 '혼돈' 혹은 '깊이', '신비'로 이해하는

25) 엘리자베스 존슨, 박총, 안병률 역, 『신은 낙원에 머물지 않는다』 (고양: 북인더갭, 2013), 162.

www.kci.go.kr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실 하나님을 인간처럼 이해하는 신학적 상상력 중에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이해하는 관점이 크게 작용한다. 모든 만물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창조한 하나님은 이 질서를 유지하시고 모든 존재를 그의 목적하에 이끌어가시는 존재이다. 케서린 켈러(Catherine Keller)라고 하는 부정신학적 과정신학자는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인간을 무력한 존재로 만들뿐 아니라,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 되어 모든 생명을 다스리고 그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비판한다.

창세기 1장 2절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개역 개정)에 따라 우리가 알고 있는 6일에 걸쳐 진행되는 창조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깊음"을 케서린 켈러는 주목한다. 창세기 1장 2절은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이 무찌른 "무(nothingness)"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었다고 보도한다.[26]

켈러는 이 구절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테홈(Tehom)'이라고 하는 언어로 지칭할 수 없는 하나님을 제안한다. 테홈은 존재자들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스스로 있었던 존재이다. 이 테홈으로서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존재자들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는 이신론적 존재가 아니라 존재자들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계속되는 창조(creatio continua)'를 누리게 한다.[27] 이러한 창조 신앙 안에서는 인간만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며, 현존하는 모두가 창조의 과정에 참여하며 협력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닮은 모습으로 인간을 제일 먼저 창조한 존재가 아니라 "깊음"으로 있는 듯 없는 듯 계시다. 깊은 물을 헤엄치는 물고기들처럼 인간은 혼돈

26) Catherine Keller, ***On the Mystery*** (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8), 48.

27) 최순양, "캐서린 켈러의 과정신학적 부정신학," 한국여성신학회 엮음,『21세기 세계 여성신학의 동 향』(서울: 동연, 2014) 249.

www.kci.go.kr

과 미결정성으로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의 영'과 함께 헤엄쳐 나간다.[28] 혼돈과 불확실성은 없애야 할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분투하는 모든 존재들과 함께 삶을 '과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창세기에 나타난 인간 중심성을 재해석하기 위해 '공동창조자'라는 개념을 소개한 신학자도 있다. 필립 해프너는 인간이 피조된 존재이기는 하지만, 인간이 세계에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세계 내적 존재, 즉, 창조 질서와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강조한다.[29]

인간은 다른 생명체들과 분리되어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위임받은 자유를 통해 다른 존재들을 보살피는 임무를 가진다. 해와 달과 별들은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창조를 돕는 존재들이었다. 하나님이 먼저 창조한 존재들은 나무가 열매를 맺고, 성장하는 과정을 도왔다.[30]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는 인간뿐 아니라 비인간 존재들도 참여하여 공동으로 창조를 돕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 역시 인간 중심성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과 자연 그리고 기술의 공생관계를 설명하는 듯하지만, 여전히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자유나 독특성을 강조하게 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다른 어떤 생물종과는 달리 유전적, 본능적 성향에 반하여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31]고 하는 인간의 두드러진 특징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실 창조주 하나님이 무를 없애고 지금의 존재론적 질서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해하에서는 해소되기 어렵다. 이러한 구도

---

28) 케서린 켈러, 박일준 역, 『길위의 신학』 (서울: 동연, 2020), 135.

29) Philip Hefner, *The Human Factor: Evolution, Culture, and Religion* (Minneapolis:Fortress, 1993), 36. 전현식/김은혜 외, 『사물, 생태,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22), 110에서 재인용.

30) 전현식/김은혜 외, 『사물, 생태, 신학』, 113.

31) 위의 책, 118.

www.kci.go.kr

에서는 여전히 창조된 존재자들 중에서 가장 우월한 "인간"이 신의 창조 과정에 참여하고 "책임성"을 가지고 비인간 존재자들을 돌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심연, 즉 "테홈"은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을 흘러나오게 한 존재론적 근원을 상징한다.[32] 테홈으로부터 측량불가능한 모든 것들이- 땅, 하늘, 별뿐만이 아니라 동물, 인간, 식물 등등- 탄생되었다. 그러나, 이 창조와 탄생의 과정은 문자주의적 창세 이야기로도, 심지어 기계론적 자연관이나 진화론으로도 소진되지 않는다. 기계론적 자연관을 품은 과학적 입장이나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을 강조하는 창조론은 모두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 다른 생명체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정당화한다.

과학에서도 모든 존재들은 그것이 유기체이든, 기계적 존재이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고립되어 혼자의 힘으로 존재하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진화론(공생진화론)을 주장하는 마굴리스나 세이건은 식물들은 다른 유기체로부터 새로운 유전자를 획득하여 진화하기도 하기 때문에 진화가 전적으로 돌연변이를 통해서만 일어난다고 보는 신다윈주의를 반박했다.[33]

모든 현상들을 증명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해 내고자 하는 과학조차도 정확하게 설명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객관적인 과학조차도 존재의 상호연관성과 밝힐 수 없는 신비를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이다. 카오스 이론을 주장한 존 그리빈은 "지구 표면에서 사는 모든 생명체들은 별로부터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평형 상태로가 아니라 혼돈의 가장 자리에서

32) 케서린 켈러,『길위의 신학』, (동연, 2020)140.
33) 전현식/김은혜 외,『사물, 생태, 신학』, 63.

www.kci.go.kr

스스로를 유지한다"라고 했다.[34]

천체 물리학이 설명하고 있는 이 "혼돈"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 깊이 위에 있는 흑암"과 공명 되어 우리에게 다가온다. 발전된 과학이 기대고 있는 이 '혼돈'은 고대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근원으로 상상되어졌다. 무수한 인간의 발전이 결국엔 태초에 사람들이 느꼈던 그 신비에 대한 경외감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 2. 극복해야 할 신의 이미지: 인간과 자연을 돌보는 하나님(돌봄자 하나님)

하나님의 이미지를 인간중심적이지 않게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는 생태여성신학에 의해 끊임없이 시도되어 왔다. 대표적 생태여성신학자 샐리 멕페그는 하나님의 대안적 이미지를 통해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하나님 상징을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가부장적 군주적 모델을 대치하는 어머니로서의 하느님(God as Mother ), 연인으로서의 하느님(God as Lover ), 그리고 친구로서의 하느님(God as Friend) 모델을 제안하였다.[35]

남성성 이외의 특징을 지닌 존재로서 하나님을 친근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제시한다. 하나님이 어머니, 연인, 그리고 친구로서 그려질 때 이는 지배나 독재와 달리 통합성이나 상호 의존성의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들과 관계되어있고, 존재들을 돌보는 분으로 하나님을 상상하기 위해, 생명을 돌보고 양육하는 "어머니"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이미지로 제시하기도 하였다.[36]

이본 게바라 역시 인간들에게 지구의 위기를 치유하고, 기운을 북돋아 줄 것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몸이라고 상상되어질 수 있는 이 세계를

34) Catherine Keller, *On the Mystery,* 51.
35) 샐리 멕페이그 지음, 정애성 옮김, 『어머니 연인 친구』 (서울: 뜰밖, 2006), 147.
36) 위의 책, 152.

www.kci.go.kr

돌보고 가꾸라고 제안한다.

이러한 생태여성신학은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데, 그것은 "생명을 잉태하는 산고로, 정의로운 분노로... 지배와 착취를 사랑과 정의의 상호 관계성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현존 방식을 드러내기 때문이다.[37]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치유하고 돌보고 상호관계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남성은 합리적이고 일방적이고 지배와 착취를 일삼았고, 여성은 생명을 잉태하며, 희생을 하면서도 사랑을 여전히 실천한다'라고 하는 이분법적 구도에서 자유로운 구분법인가에 대해서 질문해야 한다.

돌보고 치유하는 서술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인간중심적인 용어이지만 나아가서 "여성신학"에서 대안적으로 이것이 여성의 역할이어야 할 것으로 제시되는 것은 인간을 주체와 타자로 대조시키는 이분법적 대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생태여성신학에서 제시하는 대안적 하나님의 이미지가 기후 위기와 생태계의 파괴를 돌보고 치유하는 존재로서 상상되어질 때, 우리는 이중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기존의 전지전능하고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그런 이유로 인간의 실수와 타락에 자혜롭지 않아 심판을 주고 벌을 주는 하나님은 극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이미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미지에 대한 극복으로 생명을 잉태하고, 그래서 사랑과 희생으로 피조물들을 돌보는 역할로 하나님을 상상할 때, 이런 서술 방식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생명을 출산하고 그래서 늘 신체가 변형되기 때문에 여성을 '괴물'로 '비정상'으로 여겨졌던 이분법적 담론에서 그리 자유롭지 못하다.

37) 전현식 외,『사물, 생태, 신학』, 46.

www.kci.go.kr

그리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가 아니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것들'로 가득 찬 흑암의 상태를 회고해 볼 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존재들을 '치유하고 돌보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화이트 헤드 등의 과정신학자들이 제안하는 것 처럼 다른 존재들과 얽혀서 함께 현실을 만들어 가는 존재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오히려 물질에도, 어떤 형태의 존재들에도 현존하는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호흡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가능성과 잠재성에 가깝다. 살면서 만나는 "애매모호하고, 혼란 스럽고, 난폭한"[38] 것들이나 순간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다. '하나님의 영'에는 빛만 있는 것도 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두움도 있고 악도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인간의 눈으로만 경험되어질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특정한 인간에게만 계시되어지는 존재도 아니다.[39] 구분되어질 수 있지만 단절되지는 않고, 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둘로 갈라지지는 않는 다양성과 복잡한 존재들에게서 신은 현존하고 그 기운을 전달한다.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존재들 속에 깃들어 있는 가능성과 에너지로 묘사될 수 있다. 존재들에게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수행하도록 하는 존재이기 보다는 각각의 존재들의 현실세계 속에서 수많은 선택과 행위능력을 누리도록 힘을 주는 존재이다.

## VII. 나가는 말

인간이 완성되거나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얽혀진" 존재로

38) 케서린 켈러, 『길위의 신학』, 149.

39) Catherine Keller, *Intercarnations: Exercises in Theological Possibility*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2017) 45.

www.kci.go.kr

인간뿐 아니라 인간이 아닌 존재들에게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사실상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의 제안이다.

이러한 생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서열적으로 분류하고, 존재론적 차별과 대조법을 끊임없이 양산하고 있는 인간중심적 언어의 이분법을 극복해야만 한다. 신학적 언어에는 그러나 여전히 인간중심적이며 이분법적인 용어와 개념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

상상할 수 있는 인간 중에서 가장 최고의 존재로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목적을 부여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도록 부름받았다고 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은 여전히 인간중심적으로 존재들을 차별적으로 줄 세우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을 심각하게 고려하며 반응하려는 신학자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기독교적 세계관, 그리고 그 세계관을 지탱하는 존재론적 언어와 개념들을 급진적으로 재고하고 해체하여야 할 기로에 서 있다고 할 것이다.

www.kci.go.kr

## 참고문헌

김진호 외.『인간 너머의 인간』. 고양: 사월의 책, 2021.

박미선. "로지 브라이도티의 존재론적 차이의 정치학과 유목적 페미니즘."「여성이론」12(2001), 175-186.

이연정. "여성의 시각에서 본 모성론."「여성과 사회」6(1995), 160-183..

전현식, 김은혜 외.『사물, 생태,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22.

최순양. "캐서린 켈러의 과정신학적 부정신학." 한국여성신학회 엮음.『21세기 세계 여성신학의 동향』. 서울: 동연, 2014. 245-273.

최유미.『해러웨이, 공-산의 사유』. 서울: 도서출판b, 2021.

한국영미페미니즘문학회,『페미니즘 차이와 사이』. 서울: 문학동네, 2011.

Balsamo, Anne Marie. *Technologies of The Gendered Body.* 김경례 역.『젠더화된 몸의 기술』. 홍천: 아르케, 2012.

Braidotti, Rosi. *Nomadic Subjects.* 박미선 역.『유목적 주체』. 서울: 여이연, 2004.

_____. *Posthuman*. 이경란 역.『포스트 휴먼』. 파주: 아카넷, 2015.

_____. *Metamorphoses.* 김은주 역.『변신』. 서울: 꿈꾼문고, 2020.

Johnson, Elizabeth. *Quest for the Living God.*『신은 낙원에 머물지 않는다』. 고양: 북인더갭, 2007.

Keller, Catherine. *Intercarnations: Exercises in Theological Possibility.*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2017.

_____. *On the Mystery.* 박일준 역.『길위의 신학』. 서울: 동연, 2020.

Mcfague, Sallie. *Models of God.* 정애성 역.『어머니 연인 친구』. 서울: 뜰밖, 2006.

Merchant, Carolyn. *Radical Ecology* 허남혁 역『래디컬이콜로지』서울: 이후, 2007.

논문투고일: 2023년 11월 16일
심사개시일: 2023년 11월 16일
게재확정일: 2023년 12월 12일

www.kci.go.kr

## • 국 문 초 록 •

이 글에서는 그동안 여성이 누구인가를 정의내려온 인식론적 여성정의에 관해 비판하고, 서구 백인 남성이라고 하는 주체의 반대자로 생명, 출산 등의 이미지로 여성을 정의 내려온 인간중심적 신학과 생태주의 여성 신학에 대해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간을 정의내리는 범주들이 이분법적이고 주체와 열등한 타자를 끊임없이 본질화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정적이고 본질적인 여성 정의들을 넘어서기 위해 로지 브라이도티 등이 주장한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은 여성을 붙박여있고, 정적인 존재로 정의내리기 보다 끊임없이 움직여가고, 다른 존재들과 얽혀있는 존재로 읽어내려간다. 이러한 인간중심적 언어들을 해체하며 모든 존재들이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전제를 신학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필자는 기독교의 창조주 개념과 돌보시는 하나님 개념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신비'와 '흑암'으로의 하나님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인식론적 여성, 인간중심주의,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 로지 브라이도티, 차이의 페미니즘, 혼돈으로서의 하나님, 지탱시키시는 하나님

www.kci.go.kr